

日本語 名詞表現을 통해 본 名詞의 動詞性

- <動詞的名詞>와 <連用形名詞>를 中心으로 -

채성식*

csshhs@korea.ac.kr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動詞+こと> <動詞的名詞> <連用形名詞>의 意味的 連続性
- III. <動詞的名詞>와 <連用形名詞>에 있어서의 動詞性的 相違
 - 3.1. 「NP1+ノ+NP2」에 있어서의 <動詞的名詞>
 - 3.2. 「NP1+ノ+NP2」에 있어서의 <連用形名詞>
- IV. 맺으며

Abstract

本稿は、日本語の名詞表現にみられる動詞性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多種多様な名詞表現のうち、動詞の名詞転化により生じるがために潜在的な動詞性を含意するとされる、<動詞的名詞>と<連用形名詞>を主たる分析対象としている。既存の研究では、この種の名詞に対し、内在するとされる<潜在的な動詞性>に焦点が当てられ、その結果、<格成分との共起可否>や<前後の構文要素との潜在的な格関係の想定可否>などの統語論的側面と、名詞への品詞転換の際、元の動詞の有する語彙の意味と派生名詞のそれとで認められる<意味的相違性>などの意味論的側面から主に議論がなされてきた経緯がある。

しかしながらそれらは、実際の分析対象が限られた連体修飾表現や名詞述語構文などに偏ってしまったあまり、当該名詞類に潜在するとされる動詞性の全体像を捉えるには遠く及ばなかった。

そこで本稿では、先行研究でさほど注目されることのなかった<広範囲な連体修飾表現>のような動詞の名詞転化にまつわる多様な用例の分析をもとに、たとえ動詞からの派生により生まれるという形態上の特徴を共有する名詞類であろうとも、諸々の要因により相互にその動詞性について大きな隔たりが生じうることを明らかにし名詞に潜在する動詞性の実体に迫りたいと思う。

* 高麗大学校 日語日文学科 助教授, 日本語学 전공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A00019)

Key Words : 動詞的名詞, 連用形名詞, 動詞性, 連體修飾表現, 名詞表現(동사적명사, 연용형명사, 동사성, 연체수식표현, 명사표현)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日本語의 名詞表現 중 <動詞的名詞>¹⁾와 <連用形名詞>²⁾가 含意하는 動詞性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 (1) a. まもなく東京に到着です。 (井上・金(1998))
 b.今日は歩きですか。 (国広(2002))

(1a)의 「到着」와 같은 <動詞的名詞>는, 寺村(1991), 南(1993)³⁾, 井上・金(1998)⁴⁾ 등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補助動詞「する」와 결합하여 複合動詞(엄밀히 말하자면 <サ行複合動詞>)로의 品詞轉換이 가능한 名詞類를 총칭한다. 品詞上 名詞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動詞性을 含意하고 있어 句문의 意味 해석 과정에서 動詞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2字 漢字語(i.e. 漢語名詞)를 포함한 連體修飾表現⁵⁾과 文末表現((1a)참조)에서 많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⁶⁾

-
- 1) 「VN(Verbal Noun)名詞」, 「動詞的名詞」(寺村(1991)), 「名詞述語」(南(1993)), 「動詞性名詞」(井上・金(1998))
 2) 「連用形名詞」(西尾(1962)), 「動詞連用形名詞」(岡村(1985)), 「連用形轉用名詞」(国広(2002)).
 3) 南(1993)는 이러한 종류의 名詞를 포함한 句문을 「疑似名詞述語文1」으로 규정하고, 述部の 위치에 <動詞的 意味>를 지니는 漢語名詞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e.g. 私たちは明日出發です。(밑줄은 필자에 의함)
 4) 井上・金(1998)은 <名詞述語構文>에 등장하는 名詞를 잠재적인 動詞性을 含意한 <動詞的名詞>라고 규정하고, 同種의 名詞에 대해 一般名詞 혹은 動詞와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다.
 5) 日本語의 連體修飾表現 중에서도 主要語와 修飾語를 連體助詞「ノ」로 연결한 「NP1+ノ+NP2」의 형태에서 주로 관찰된다.(e.g. 「物理学の研究」, 「学生の登校」등(寺村(1991), 拙稿(2008, 2009)참조, 밑줄은 필자에 의함).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NP2」가 <動詞的名詞>인 「NP1+ノ+NP2」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動詞的名詞>가 2字 漢字語인 경우를 중심으로 拙稿(2008, 2009)에 근거하여 同 名詞가 「NP1」에 위치한 경우로까지 고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6) 拙稿(2009:210)참조.

한편, (1b)의 「歩き」와 같은 <連用形名詞>의 경우는 動詞의 連用形에서 派生된 名詞로서 그 유형을 形態上으로는 ① 動詞連用形이 단독으로 名詞화된 경우(e.g. 「遊び」「救い」 등), ② 복수의 動詞連用形이 결합하여 名詞화된 경우(e.g. 「組み立て」「申し込み」 등), ③ 上位成分 혹은 下位成分으로서 動詞連用形이 사용된 경우(e.g. 「届け先」「首巻き」 등)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⁷⁾ 意味上으로는 <原型이 되는 動詞>(이하 元動詞)와의 意味的 關聯性이 희박한 것(e.g. 「流す」- 「台所の流し」)과 그렇지 않은 것(e.g. 「走る」- 「走り」)으로 분류할 수 있다.⁸⁾

<動詞的名詞>와 <連用形名詞>는 공통적으로 品詞의 轉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動詞의 名詞轉化樣式」(西尾(1961))으로서의 位相이 인정되며, 句문의 意味解釈過程에서 動詞的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이들 名詞의 動詞性 含意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同種의 名詞에 내재된 <잠재적인 動詞性>에 주목하여 <格成分과의 共起가능 여부>⁹⁾ 및 <잠재적인 格關係의 想定가능 여부>¹⁰⁾ 등의 統辭論的인 측면과, 名詞로의 品詞轉換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의 元動詞와의 <意味的 相違性>¹¹⁾ 등의 意味論的 觀點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対象이 <제한된 連體修飾表現>¹²⁾이나 <名詞述語構文>(특히 文

7) 西尾(1961:63)는 이 외에도 「使役形の 連用形에서 派生된 名詞(e.g. 嫌がらせ, 合わせ 등)」 또한 想定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① 動詞連用形이 단독으로 名詞화된 경우」의 下位範疇로 간주하여 본문 내에서 세 가지 유형만을 소개하고 있다.

8) 岡村(1985)는, 動詞와 그로부터 派生된 <連用形名詞>와의 사이에 意味的 關聯性이 희박하여 動詞의 連用形이 動詞의 행위(行為), 움직임(動き), 작용(作用)의 樣相을 나타내는 것을 <典型的인 連用形名詞>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본 연구에서도 주된 高찰대상을 이러한 <典型的인 連用形名詞>로 한정한다.

9) e.g. 後ほど私から彼に{**連絡です/ok連絡します}。(井上・金(1998:457), 밑줄은 필자에 의함)

10) e.g. 「雪どけ」→「雪がとける」(主語關係), 「首巻き」→「首を巻く」(目的語關係)

11) 国広(2002:76)에 의하면, 예를 들어 「温泉マンションは今買いか」라는 句문에 있어서의 <連用形名詞>인 「買いか」는 <무엇인가를 구입하는 것(何々を買うこと)> 이라는 단순한 行為의 意味가 아닌 <구입하면 득을 보는 상품>이라는 派生적인 意味의 성격이 강하며, 그 배경에는 <용어의 틀(枠組み)>이 존재한다. 国広는 이를 「틀효과(<枠組み効果>, 한국어역은 필자에 의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 II장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12) 주5)참조.

末表現)등에 지나치게 치중된 나머지 同種의 名詞에 잠재된 動詞性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광범위한 連体修飾表現>¹³⁾와 관련된 다양한 용례에 대한 심화분석을 토대로, 動詞로부터 品詞轉換에 의해 派生된 名詞類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諸般 要因에 의해 상호 간에 그 動詞性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名詞에 잠재된 動詞性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Ⅱ. <動詞+こと> <動詞的名詞> <連用形名詞>의 意味的 連続性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하 본 연구에서는 2字 漢字語인 <動詞的名詞>와, 動詞連用形이 단독으로 名詞화된 <連用形名詞> 중 動詞가 語彙의으로 지닌 행위·움직임·작용의 意味를 나타내는 <典型的인 連用形名詞>¹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이들 名詞는 구문 내에서 元動詞의 意味를 계승한다는 意味論的인 특징을 공유하며, 구체적으로는 動詞의 語彙的 意味인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動詞+こと>(i.e. 何々すること)의 意味로 해석되는 경향이 크나, 예외적인 경우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西尾(1961), 岡村(1985), 国広(2002)등 참조)

특히 西尾(1961:72)는, <連用形名詞>와 <漢語名詞>¹⁵⁾가 기본적으로 上記의 <動詞+こと>의 意味¹⁶⁾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後者와 달리 前者의 경우, 動詞와 그로부터 派生된 名詞(이하 派生名詞)사이에 관찰되는 <語形上の 連続性>¹⁷⁾으로 인해 높은 활용도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

13) 주5)참조.

14) (1b)및 주6)참조.

15) 본 연구에서 말하는 <動詞的名詞>를 가리킴.

16) 본 연구에서 말하는 <典型的인 連用形名詞>로서의 意味를 가리킴. 주8)참조.

17) 「語形上のつながり」(西尾(1961)). 五段動詞의 경우는 語尾의 「u」가 탈락하고 「i」가 첨가되며, 上·下1段動詞의 경우는 「ru」가 탈락되는 것만으로 <連用形名詞>의 생성이 가능하다.

용 환경에서 後者 쪽이 보다 활발히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2) a. 選ぶ ⇒ 選び ≪ 選択
- b. 失う ⇒ 失い ≪ 喪失

(西尾(1961:72), 필자에 의한 수정)

그러나 西尾는 <連用形名詞>처럼 品詞轉成에 있어 <意味的 相通性>이 인정되는 動詞·名詞 관계인 경우, <漢語名詞>와는 차별화된 <語形上の 連続性>에 起因한 <連用形名詞>고유의 존재의의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래 (4)의 <표1>과 같이 각각의 意味領域을 類型化하고 있다.

(3) 漢語名詞が動作・作用そのもの...(中略)...を表わし、連用形名詞が...(中略)...動作・作用の内容・様態・所産その他、動詞の表す活動そのものの概念からずれた意味を表すという、意味の分け合いが見られることもある。(西尾(1961:72-73))

(4) <표1><連用形名詞와 漢語名詞의 意味領域에 관한 유형화>

動詞の表す活動そのものの概念からずれた意味を表わす場合	動詞の動作・作用そのものを表わす場合
連用形名詞の例	漢語名詞の例
教え(教えることから、教訓)	教育
*教えること	ok教えること
育ち(育つ環境、素性)	発育
*育つこと	ok育つこと
包み(包んだもの)	包装
*包むこと	ok包むこと
cf. 祈り→ ok.祈ること / ok.祈ることがら	

(西尾(1961:73)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한편 国広(2002)는 아래의 (5)와 같은 <連用形名詞> 자체의 새로운 용법¹⁸⁾

이러한 규칙적인 派生은 動詞의 語幹에는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으며, 그 결과 <語形上の 連続性>은 유지된다.

18) 国広(2002)은 주로 事態의 객관적 묘사를 다룬 종래의 <連用形名詞>의 용법과는 달리, 昨今の <連用形名詞>에서 관찰되는 주된 특징을 主觀的·能動的인 意味를 나타내는 용법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連用形轉成名詞の新用法」로 규정하고 있다.

e.g. a. 外の女郎衆も、ていふのりがわるくなったと追々聞きやしたから。(事態의 客觀的 描写)

을 지적하며 그 성립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 (5) a. つかみは若者に圧倒的人気のバスケット漫画} 『スラムダンク』。
 b.今日は歩きですか。
 c.いまこの編者の名前が走りだと思ったものですから。
 d.この車は恰好はいいけど、走りがいまいちなね。

(国広(2002:74-77))

上記의 (5a-d)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連用形名詞>가 순수한 동작의 意味, 즉 動詞가 語彙的으로 지닌 동작·작용 그 자체의 意味가 아닌 그로부터 派生된 여러 가지 意味的 選択肢 중 문맥에 적합한 하나의 意味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지면 관계상 上記 (5a-d)중 일부만을 살펴보면, (5b)의 「歩き」는 <걷는 동작>이 아닌 인간의 여러 이동방법 중 하나인 <보행>을 意味하며, 마찬가지로 (5d)의 「走り」의 경우도 <달리는 동작>이 아닌 <주행성능>으로 대표되는 <차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다. 国広는 이와 같은 현상의 출현배경에 다양한 틀(枠組み)적 요소(e.g. 용어, 배경지식 등)로 인한 意味的 選択肢의 증가, 즉 「틀효과(枠組み効果)」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틀효과」를 媒介로 動詞만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意味的 派生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6) a.今日は歩かないですか。
 (「걷는 것(歩くこと)」 이외의 意味的 派生이 불가능)
 a'.今日は歩きですか。 (<이동수단>의 한 종류로서의 <보행>)
 b.あまりよく走らないね。(「달리는 것(走ること)」이외의 意味的 派生이 불가능)
 b'.走りがいまいちなね。 (<차의 특성>의 한 종류로서의 <주행성능>)

결국 上記의 (6a')와 (6b')에서는 각각 「歩き」= 「歩くこと」, 「走り」= 「走ること」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岡村(1985)가 제시한 이하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證明이 가능하다.

b. 軽いのりで行こう。(主観的·能動的 意味)

(国広(2002:75))

(7) a. 走ることは身体に良い。

a'. *走りは身体に良い。

(岡村(1985:75))

岡村에 의하면, <動詞+こと>와 <連用形名詞>가 「用言的인 것을 体言的인 것으로 具象化한다」(岡村(1985:77))는 점에서 공통되나, 具象化가 이루어지는 레벨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큰 간극이 관찰된다. 이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動詞+こと>의 경우 아래의 (8)에서 볼 수 있듯이 動詞 자체가 보충성분(i.e. 보충적인 성격의 구문요소)과의 결합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語彙的 意味를 갖는가 아닌가, 즉 語彙的 意味의 含意 정도에 따라 구문 내에서의 容認度가 좌우된다.

(8) a. 宿代が八千円で済むことが分かっていたらなあ。(もっとお土産を買ったのに)

a'. *済むことが分かっていたらなあ。

b. 走ることは身体に良い。

b'. 土の上を裸足で走ることは身体に良い。

(岡村(1985:75))

上記의 (8a)와 (8a')과의 사이에 容認度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動詞+こと>에 의해 具象化되는 対象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語彙的 意味가 희박한 「済む」의 경우 단어로서의 독립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때 <動詞+こと>에 의해 具象化되는 対象이 「済む」 자체의 내적意味가 아닌 「済む」와 보충성분(i.e. 「宿代が八千円で」)과의 결합을 통하여 생성된 事態(ことから, i.e. 「宿代が八千円で済む」)이기 때문에¹⁹⁾, 「済む」가 단독으로 「こと」와 결합한 (8a')는 具象化의 対象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구문전체가 意味的으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고 만다. 그에 반해 語彙的 意味가 강한 「走る」는 보충성분(i.e. 「土の上を裸足で」)이 動詞의 内적意味에 含意되지 않는, 단지 부가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動詞+こと>에 의한 具象化에 있어 「済む」와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²⁰⁾

19) 岡村는 이를 토대로 <動詞+こと>표현에 있어서의 具象化를 한마디로 「ことからの具象化」로 결론짓고 있다.

한편 <連用形名詞>의 경우는 具象化되는 対象이 <動詞+こと>와는 달리 事態가 아닌 「動詞의 語彙的인 意味를 나타내는 행위·움직임·작용의 様相」(「動詞の具体概念」(岡村(1985))²¹⁾이며, 이는 同種의 名詞를 포함한 구문이 「動詞連用形+方/具合い/加減」과 같은 동작의 様相을 具体化시키는 표현으로 置換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 (9) a. 洗濯物の乾きが早い。
- a'. 洗濯物の乾き方が早い。
- b. 船の揺れが心地好い眠りを誘う。
- b'. 船の揺れ具合い(加減)が心地好い眠りを誘う。
- c. このあたりは川の流れが早い。
- c'. このあたりは川の流れ方が早い。 (岡村(1985:76))

결국 岡村가 제기한 <動詞+こと>와 <連用形名詞>에 있어서의 具象化 레벨에 관한 문제의 본질은 <具象化 対象의 차이>로 歸結되며, 구체적으로는 前者가 <事態>를, 後者가 <動詞의 具体概念>을 具象化한다는 対立적인 構図 외에도, 前者의 경우, 動詞가 지닌 語彙的 意味 含意 정도에 기인한 보충성분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그 具象化 방법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표2> <動詞+こと>와 <連用形名詞>에 있어서의 具象化 레벨의 相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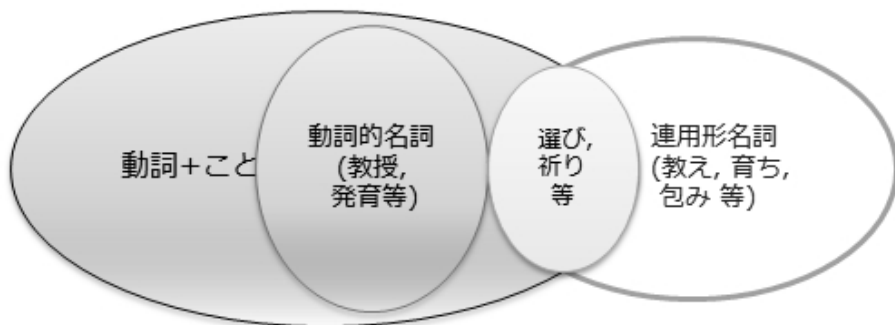
	<動詞+こと>에 의한 具象化		<連用形名詞>에 의한 具象化
具象化의 레벨	事態(ことがら)		動詞가 나타내는 행위·움직임·작용의 様相 (動詞의 具体概念)
	語彙的 意味 強(e.g. 「走る」)	語彙的 意味 弱(e.g. 「済む」)	
	ことがらをことで具象化	ことがらの具象化	

(岡村(1985:77)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20) 岡村에 의하면 이 경우, 보충요소와 <動詞+こと>의 결합으로 성립된 事態(ことがら)전체가 「こと」를 媒介로 具象化된다.

21) 「連用形名詞の方は、動詞の語彙的な意味を表す『行為・動き・作用のさま』をまとめあげるといふ性質をもつ。」(岡村(1985:76))

이상 본 장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動詞的名詞(漢語名詞)>와 <連用形名詞>의 動詞性を 파악하기 위해 <動詞+こと>와의 비교 고찰을 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들 세 요소 간에 일정한 意味的 連続性を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図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11) <그림1><動詞+こと><連用形名詞><動詞的名詞>의 意味的 連続性

Ⅲ. <動詞的名詞>와 <連用形名詞>에 있어서의 動詞性의 相違

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動詞的名詞(漢語名詞)>와 <連用形名詞>는 動詞와의 關連性에 의해 생성된 名詞라는 形態上의 특징을 공유하는 한편, 意味的으로는 <動詞+こと>의 意味를 갖는 등 일정한 動詞性を 含意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意味解釈過程에 있어서는 각각 <動詞의 典型的인 語彙的 意味(i.e. 동작·작용 그 자체의 意味)> 혹은 <動詞의 具體概念(i.e. 동작·작용의 樣態·樣相)>으로 해석되는 등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兩者간의 意味的 相違는 본 名詞類에 내재한 動詞性의 相違로 연결되며 결국 同種의 名詞類를 포함한 다양한 句法形態의 성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하 본 장에서는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日本語의 連體修飾表現 중 「NP1(修飾語)+ノ+NP2(主要語)」²²⁾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22) 「修飾する側とされる側が両方とも名詞(あるいは名詞句)となっている場合に限っては、一方を

먼저 <動詞的名詞>와 <連用形名詞>가 連体修飾表現 「NP1+ノ+NP2」에 등장할 경우, 前述한 바와 같은 각각의 意味的 相違性이 그대로 투영되어 본 표현 형식의 意味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12) <動詞的名詞>를 포함한 連体修飾表現

- a. 電車の到着を待っている客の間でざわめきが起きた。(拙稿(2009:208))
- b. 誤発信と判断されて乗組員の救助が大幅に遅れる。(拙稿(2009:219))
- c. 給食というのは子供の發育を考えてカロリー計算もされていて、
(毎日新聞, 09/12/23)

<連用形名詞>를 포함한 連体修飾表現

- d. 全員で「お父さん、お母さん、先生の教えを守ります」と誓いの言葉を述べた。
(毎日新聞, 09/12/23)
- e. 子供の育ちを見守ったり支えたりする (毎日新聞, 07/11/02)
- f. 7位入賞を果たした中村友梨香選手の走りに期待がかかる。
(毎日新聞, 09/12/12)

위의 (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12a-c)의 「到着」「救助」「發育」는 連体修飾表現 <動詞+こと>의 意味, 즉 「도착하는 것」「구조하는 것」「발육하는 것」 등 <동작·작용 그 자체의 意味>로 해석됨에 반해, (12d-f)에서는 「教え」「育ち」「走り」가 각각 「배운 내용」「성장과정」「주행능력」 등 <동작·작용의 양태·様相을 나타내는 意味>, 즉 <동사의 구체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12a-f)가 아래의 (13a-f)와 같은 <動詞+こと>구문으로의 置換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 (13) a. ok 電車が到着することを待っている客の間でざわめきが起きた。
 b. ok 誤発信と判断されて乗組員を救助することが大幅に遅れる。
 c. ok 給食というのは子供が發育することを考えてカロリー計算もされていて、
 d.* 全員で「お父さん、お母さん、先生が教えることを守ります」と誓いの言

主要語と、もう一方を修飾語というように規定し、二つの名詞を意味的に連結させる最も一般的でかつ単純な表現形式として、両者を連体助詞 「ノ」で結び付けた 「NP1+ノ+NP2」が選ばれるのはごく自然なことであると考えられる。」(拙稿(2009:210))

葉を述べた。

e.* 子供が育つことを見守ったり支えたりする

f.* 7位入賞を果たした中村友梨香選手が走ることに期待がかかる。

단,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上記의 (12a-f)의 <動詞的名詞>와 <連用形名詞>가 모두 「NP1+ノ+NP2」에 있어 主要語에 해당하는 「NP2」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하 詳述하는 바와 같이, 본 표현에 있어서의 두 名詞類의 위치(i.e. 「NP1」과 「NP2」 중 어느 쪽에 출현하는가)는 본 표현의 문법적 様相(振る舞い)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1. 「NP1+ノ+NP2」에 있어서의 <動詞的名詞>

먼저 <動詞的名詞>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필자는 拙稿(2008, 2009)를 통해 「NP1+ノ+NP2」를 대상으로 <動詞的名詞>가 「NP1」에 등장하는 경우를 <VN先行型>로, 한편 「NP2」에 등장하는 경우를 <VN後行型>로 규정한 후, 각각에 있어서의 <動詞的名詞>의 문법적 様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VN先行型>와 <VN後行型>는 「NP1」과 「NP2」가 <意味的 格關係>²³⁾ 혹은 <統辭的 項關係>²⁴⁾²⁵⁾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前者의 경우 後者에 비해 다양한 意味転用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4) a. 誤発信と判断されて乗組員の救助が大幅に遅れる。 ((13b)의 再掲)

☞ <VN後行型>, [(誰かが)乗組員を救助する] = 能動的인 意味

23) e.g. 芥川が自殺した→芥川の自殺(主格關係), 伊勢物語を研究する→伊勢物語の研究(対格關係)(寺村(1991: 241)참조)

24) 「文のばあいでも名詞句のばあいでも、目的語は、主要部(head)と姉妹關係にある内的項、つまり補部(complement)の位置にあり、主語は外的項の位置を占めているのである」(西山(1993:67), 밑줄은 필자에 의함)

25) 「NP1+ノ+NP2」형식에 있어 NP1과 NP2가 직접적인 결합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前者가 後者에 대해 内項(internal argument, e.g.目的語)혹은 外項(external argument, e.g.主語)으로 기능한다. (西山(1993:66), 拙稿(2009)참조)

e.g. 「父の死」→ NP1이 NP2의 外項으로서 기능

「英語の勉強」→ NP1이 NP2의 外項으로서 기능

「村人の調査」→ NP1이 NP2의 内項, 혹은 外項으로서 기능

b. 沈没船ナデジュタ号から松前海岸で救助の乗組員13名の函館への移送
と宿泊確保の依頼。

☞ <VN先行型>, [(誰かによって)乗組員が救助される(救助された乗組員)]
= 受動的인 意味

b'. 와이ヤーロー프はゆっくりと柱を持ち上げ、救助の人たちは、緊張の面持ちで柱の下の生存者を探した

☞ <VN先行型>, [人が(誰かを)救助する] = 能動的인 意味

(拙稿(2009:219-220))

上記 (14a-b')는 <VN後行型>와 <VN先行型>에 관한 용례로 (14a)가 能動的인 意味로 해석되고 있는데 반하여 (14b, b')의 <VN先行型>의 경우는 문맥에 따라 能動 혹은 受動的인 意味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VN後行型>에서는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VN先行型>고유의 특수한 용법이라 할 수 있는데, 元動詞가 대격을 취하는 他動詞일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는 용법상의 제한²⁶⁾은 있으나, 동일한 형태의 구문이 이처럼 能動 혹은 受動的인 意味轉用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배경에 <VN先行型>의 <구문형식으로서의 높은 生産性(productivity)>에 토대한 <動詞的名詞의 能格化>²⁷⁾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지면 관계상 <動詞的名詞의 能格化>현상에 관한 설명은 註釈으로 간략하게 갈음하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VN先行型>의 生産性を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15a-b)는 <VN先行型>의 여타 구문요소와의 共起可能性을 示唆하는 예이다.

26) 일반적으로 自動詞의 受動形은 <피해의 受動(被害·迷惑の受け身)> 혹은 <제3자의 受動(第三者の受け身)>등의 <間接受動>을 가리키나, 이러한 <間接受動>의 意味는 連体修飾表現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自動詞的 意味를 지닌 <動詞的名詞>에서는 본문 내에 기술한 바와 같은 意味轉用은 일어나지 않는다.(拙稿(2008:116-117)참조)

e.g. 友達に合格された.<間接受動> ≠ 合格の友達([친구가 합격하였다]라는 能動的인 意味)

27) 「「NP1+ノ+NP2」形式の形成過程において、複合動詞の他動的または自動的意味・働きを際立たせる補助動詞(輕動詞)「スル」が連体修飾化の過程の中で複合動詞から脱落し、その結果<動詞的名詞>が生成される(i.e.動詞的名詞化)のであるが、この<動詞的名詞>が当該形式において、その意味解釈上、<能格動詞>のごとく振る舞うようになることを、<動詞的名詞の能格化>と規定する。この場合の<動詞的名詞>は、形式上の変化(e.g.受動形への書き換えなど)を伴わずに<能動的인 意味>はもとより<受動(自動)의 意味>までも表す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れは、同一の形式でもって他動と自動の両方を兼ねることをその主要な特徴とする<能格動詞>と連続的である。」(拙稿(2009:221)를 수정)

(15) a. 今キャンペーンをやっていて初めての注文の人や友達(を)紹介の人は送料が無料でした。

b. 二泊食事付き学会会員および会員(が)紹介の一般の方々15000円。

(拙稿(2009:223))

上記의 (15)에서 <VN先行型>에 해당하는 「紹介の人」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문맥에 따라 能動(i.e. 人が(誰かを)紹介する) 혹은 受動(i.e. (誰かによって)人が紹介される)으로의 意味轉用이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구문전체의 意味的 整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의 主体(i.e. 「会員」) 혹은 客体(i.e. 「友達」)를 (때에 따라 격조사 「가」 「を」와 함께) <動詞的名詞>(i.e. 「紹介」)에 先行시켜 구문전체의 意味를 보다 구체화·특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VN先行型>의 구문형식으로서의 높은 生産性은 <VN後行型>에서는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

(16) a. *學生가先生의紹介 (ただし[學生が先生を紹介した]の意に限る)

b. *學生を先生の紹介 (ただし[先生が學生を紹介した]の意に限る)

(拙稿(2009:224))

지금까지는 주로 他動詞的 意味를 지닌 <動詞的名詞>가 <VN先行型>에 등장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動詞的名詞>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아래 (17a-d)에서 보듯 自動詞的 意味를 지닌 <動詞的名詞>가 <VN先行型>에 출현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17) a. 到着の電車に乗り遅れまいと必死に駆け込む太郎。 (拙稿(2009:208))

b. 電気・情報系A群で合格の學生は、一覧表内のA群に記載された指導教官にのみ配属され…²⁸⁾

c. 新しい病院は、完治の患者を増やすのが目的なんだろうか。²⁹⁾

d. 官僚を富ませば存続するだけの国、王を富ませれば滅亡の国となる。³⁰⁾

28) <http://phyvirtual.nju.edu.cn/mirror/www.pe.titech.ac.jp/Daigakuin/recruit-j.html>

29) <http://naika.e-jams.net/naika/248/>

30) <http://academy6.2ch.net/test/read.cgi/whis/1258704515/203>

그러나 이 경우에는 他動詞가 元動詞인 <動詞的名詞>에서 보였던 受動 혹은 能動으로의 意味転用은 일어나지 않으며, 행위의 主体가 主要部の 名詞로 한정되기 때문에 上記 (15)에서와 같은 <구문형태로서의 높은 生産性>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動詞的名詞>가 「NP1+ノ+NP2」에서 구현되었을 경우 構文論的·意味論的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가장 큰 요인은, 제 II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名詞類가 動詞가 語彙的으로 지닌 동작·작용 그 자체의 意味, 즉 <動詞+こと>의 意味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3.2. 「NP1+ノ+NP2」에 있어서의 <連用形名詞>

다음으로는 上記의 (12d-f)와 같이 <連用形名詞>가 「NP1+ノ+NP2」에 등장하였을 경우의 諸様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連用形名詞>가 <動詞的名詞>의 <VN先行型>처럼 「NP1」자리에 위치할 경우(이하, <連用形名詞>가 「ノ」에 先行하는 타입을 <連用先行型>으로, 後行하는 타입을 <連用後行型>으로 기술함), 元動詞의 종류(i.e.自動詞, 他動詞)를 불문하고 그 활용에 있어 構文論的으로도 意味論的으로도 <動詞的名詞>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먼저 元動詞가 自動詞인 <連用形名詞>가 「NP1+ノ+NP2」 형식의 <連用先行型>과 <連用後行型>의 형태로 가공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構文論的·意味論的 제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8) 自動詞 派生 <連用形名詞>를 포함한 連体修飾表現(1)

- a. 學生の走りが変だ。 (〈連用後行型〉)
 b.* 走りの學生は誰ですか。 (〈連用先行型〉)
 b'. 事故発生等で救急車がコース上に進入した時は、救急車を優先し、近くを走行の選手は、徐行を心がけてください。³¹⁾ (「走行」≠走り方)

31) <http://www.fuji200.jp/pdf/sankaannai.pdf>

(19) 自動詞 派生 <連用形名詞>를 포함한 連体修飾表現(2)

- a. 子供の育ちが良い。 (＜連用後行型＞)
 b.* 育ちの子供は頼もしい。 (＜連用先行型＞)
 b' このような发育の子供の骨は、大人と異なった構造をしています。³²⁾
 (「发育」≠育ち方)

(18), (19)에서 「走り」와 「育ち」는 <動詞+こと>의 意味가 아닌 틀효과(枠組み効果)에 의해 생성된 意味的 選択肢 중 하나인 動詞의 具体概念(i.e. 행위·움직임·작용의 様相)을 具象化하여, 각각 「走り方」, 「育ち方」의 意味로 해석됨은 既述한 바이다. (18), (19)에서 제시한 容認度 판단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自動詞 派生 連用形名詞>가 <連用後行型>이 아닌 <連用先行型>에 출현하였을 경우 그 容認度는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容認度 低下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본 名詞類가, 自動詞의 意味를 지니더라도 <VN先行型>에서 <動詞+こと>의 意味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動詞的名詞>(18b'), (19b')참조³³⁾와는 달리 動詞 본연의 意味(i.e. 동작·작용 자체의 意味)를 상당부분 상실한 체 <행위·움직임·작용의 様相>의 意味로 固着化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意味的 固着화로 인해 본 名詞類는 「NP2」에 등장하는 主要部와 <意味的 格關係>(i.e. 主語關係)를 맺을 수 없고, 결국에는 主要部를 수식하는 부가적인 요소로서의 활용 밖에 기대할 수 없게 되지만, 이 또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사 자체의 意味의 語彙的 불완전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 (20) a.* 走り方の学生は誰ですか。
 (「走り」를 「走り方」로 치환했을 경우의 容認度)
 b.* 育ち方の子供は頼もしい。
 (「育ち」를 「育ち方」로 치환했을 경우의 容認度)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自動詞 派生 連用形名詞>를 포함

32) <http://www.sumiyoshi.osaka.med.or.jp/yomi9812.htm>

33) e.g. 「到着」「合格」「完治」「滅亡」, ((17)참조)

한 <連用先行型>에서 관찰되는 上記의 현상이, 제 II장에서 거론한 보충성분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具象化가 가능한 「済む」의 경우와 連続的이라는 사실이다.

- (21) a. 宿代が八千円で済むことが分かっていればなあ。(もっとお土産を買ったのに)
 a'. *済むことが分かっていればなあ。
 b. 走ることは身体に良い。
 b'. 土の上を裸足で走ることは身体に良い。 ((8)의 再掲)

즉, 語彙的 意味가 강한 「走る」등 과는 달리 단어로서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こと」에 의한 具象化의 대상이 될 수 없는 「済む」는 반드시 보충성분과의 결합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그 전체가 事態(ことがら)로서 具象化 될 수 있었다. 바로 이 점을 (18b), (19b)에 적용시켜 「変な」「いい」등의 보충요소를 <連用形名詞> 앞에 첨가해보면, (21a)에서 관찰된 바와 같은 容認度의 向上을 볼 수 있다.

- (22) a. ok 変な走りの学生は誰ですか。
 b. ok いい育ちの子供は頼もしい。

결국 (22a,b)에 있어 「変な」와 「いい」는 각각 「走り」와 「育ち」의 양태적 意味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다시 말해 이들 <連用形名詞>의 부족한 語彙的 意味를 보충하는 <보충성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連用先行型> 전체가 事態(ことがら)의 意味로 具象化되어 후속문맥과의 意味的 正합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元動詞가 他動詞인 <他動詞 派生 連用形名詞>를 포함한 <連用先行型>과 <連用後行型>에 있어서의 각각의 構文論的·意味論的 제약은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 **他動詞 派生 <連用形名詞>를 포함한 連体修飾表現(1)**

- a. 選手の選びが難しくなる。³⁴⁾ (<連用後行型>)
 a'. ok 選手の選択(選別)が難しくなる。 (「選び」= 「選別」)

- b. * 選びの選手 (〈連用先行型〉)
- (24) **他動詞 派生 〈連用形名詞〉를 포함한 연체수식표현(2)**
- a * 學生의 教えが難しくなる。³⁵⁾ (〈連用後行型〉)
- a'. ok 學生의 教育が難しくなる。 (「教え」≠「教育」)
- b. * 教えの學生 (〈連用先行型〉)
- (25) **他動詞 派生 〈連用形名詞〉를 포함한 연체수식표현(3)**
- a. 快癒의 祈りを捧げている。 (〈連用後行型〉)
- a'. ok 快癒의 祈願を捧げている。 (「祈り」=「祈願」or「祈り」≠「祈願」)
- b. * 祈りの快癒 (〈連用先行型〉)

上記 (23)–(25)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動詞의 語彙的 意味에 따라 본 표현으로의 활용이 제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23a)의 「選

び」, (24a)의 「教え」, (25a)의 「祈り」는 각각 「選ぶこと」³⁶⁾, 「教えることがら」³⁷⁾, 「祈ること, 祈ることがら」³⁸⁾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意味的 相違性에 따라 본 名詞類의 〈連用先行型〉과 〈連用後行型〉으로의 활용은 각기 다른 樣相을 보이게 되며, 전반적으로 〈連用後行型〉에 비해 〈連用先行型〉의 容認度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連用先行型〉의 경우, 語彙적으로 〈動詞+こと〉로 해석되기 쉬운 (23a)의 「選

び」와 (25a)의 「祈り」를 포함한 쪽이 (24a)의 「教え」의 그것에 비해 그 容認度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走り」와 「育ち」의 경우처럼 「教え」가 동작·작용 그 자체로 해석될 만큼의 語彙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교육내용」 등의 부가적인 意味로 固着化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상 본 절에서는, 〈自·他動詞 派生 連用形名詞〉가 〈連用先行型〉과 〈連用後行型〉에서 구현되었을 때 관찰되는 갖가지 문법현상을 통해 〈連用形

34) (24a)는 NP1이 동작의 主体가 아닌 客体로 기능할 경우, 즉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한해 비문으로 판단된다.

35) (24a)와 마찬가지로 (24b)도 [學生を教えること] 라는 他動詞的意味일 경우에 한해 비문으로 판단된다. 上記의 (12d) 「先生の教を守ります」처럼 NP1이 동작의 主体일 경우 본 예문은 용인된다.

36) 예문(2)참조.

37) 예문(4)〈표1〉참조

38) 예문(4)〈표1〉참조

詞>가 지닌 <動詞性>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의 분석을 통해 <自動詞 派生 連用形名詞>의 경우 아무런 가공³⁹⁾없이 <連用先行型>의 형태로 구현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他動詞 派生 連用形名詞>의 경우 <連用先行型>으로의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밝혀졌다. 다만, 아래 (26)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連用先行型>에 있어 敬意를 나타내는 接頭語 「お」가 <連用形名詞>와 결합할 경우, 自・他動詞 派生에 관계없이 여타 보충성분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상당한 容認度 向上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6) a. お歩きの方はどうぞ。

b. お選びの選手/お選びの商品

国広(2002:75)는 「今日は歩きですか」와 「今日はお歩きですか」를 비교분석하여, 後者に 있어서의 「お歩き」는 「お歩きになるのですか」로 확장이 가능한 만큼의 순수한 동작적 意味를 含意하기 때문에, 兩者가 丁寧度의 차이뿐만 아니라 意味的인 차이도 포함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国広의 知見은 본 연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해석할 수 있다. <連用先行型>에 敬意를 나타내는 「お」가 첨가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는 <連用形名詞>의 동작 主体(i.e.(26a)의 「方」)혹은 客体(i.e.(26b)의 「選手」)가 敬意의 対象으로 명확히 한정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動詞 本연의 意味에 초점이 맞춰져 「お」+<連用形名詞>가 동작적 意味(거기에 부수적으로 경어적인 意味가 부가됨)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接頭辭 「お」는 <連用形名詞>의 부족한 語彙的 意味를 구체화시키는 보충요소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작의 主体 혹은 客体를 한정 지운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틀효과(枠組み効果)⁴⁰⁾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표현을 과연 어떤 유형의 <連用形名詞>로 분류하여야할 지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도 정확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39) i.e. (22a,b)에 있어서의 「変な」「いい」등의 보충성분의 삽입.

40) 제 II장 참조.

IV. 맺으며

이상 본 연구에서는 日本語의 名詞表現 중 動詞로부터의 品詞轉換에 의해 생성되어 일정한 動詞性을 내재하는 <動詞的名詞>와 <連用形名詞>가 連体修飾表現 「NP1+ノ+NP2」에 구현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법현상과 意味解釈過程의 차이를 토대로 動詞性的 相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고찰을 통해 이러한 動詞性的 相違가 兩者의 語彙的 意味와 動詞의 동작·작용 그 자체의 意味(i.e.<動詞+こと>의 意味)와의 관련성, 出現환경(e.g. 「NP1+ノ+NP2」)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용례에 대한 분석과 상기의 두 名詞類를 제외한 動詞性을 含意한 名詞에 대한 고찰은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井上優·金河守(1998) 「名詞述語の動詞性・形容詞性に関する覚え書き-日本語と韓国語の場合-」, 『東西言語文化の類型論特別プロジェクト研究報告書』, 筑波大学東西言語文化の類型論特別プロジェクト研究組織, pp.455-470
- 岡村正章(1985) 「『典型的な動詞連用形名詞』に関する考察」 『上智大学国文学論集』, 上智大学, pp.73-89
- 金田一春彦(1976) 『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むぎ書房
- 国広哲弥(2002) 「連用形名詞の新用法は異常か」 『言語』39-1, 大修館書店, pp.74-77
- 坪本篤朗(1998) 「文連結の形と意味と語用論」, 赤塚紀子·坪本篤朗(共著) 『モダリティと発話行為』, 研究社出版
- _____ (1999) 「モノとコトから見た文法→主要部内在型関係節とト書き連鎖→」, 『日本語学』 19, 明治書院, pp.26-40
- 寺村秀夫(1975-1978) 「連体修飾のシンタクスと意味 その1~その4」, 『日本語・日本文化』 4-7, 大阪外国語大学留学生別科
- _____ (1991)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III』, くろしお出版.
- 西尾寅弥(1961) 「動詞連用形の名詞化に関する一考察」 『国語学』明治書院, pp.60-81
- 西山佑司(1993) 「『NP1のNP2』と“NP2 of NP1”」, 『日本語学』10-12, 明治書院, pp.65-71
- 南不二男(1993) 『現代日本語文法の輪郭』, 大修館書店
- 蔡盛植(2008) 「連体修飾表現 『NP1(動詞的名詞)+ノ+NP2(連用補語)』에 있어서의 多義

성에 관하여, 『日本語文学』 38, 韓国日本語文学会, pp.107-129

_____(2009) 「<名詞>に潜在する<動詞性>について—<動詞的名詞>を含む連体修飾表現を中心に—」 『日本語文学』 43, 韓国日本語文学会, pp.207-231

<辞典>

『日本語文法大事典』(2001) 明治書院

『言語科学の百科事典』(2006) 丸善株式会社

CD-ROM版 『大辞泉』(1997)第1版, 小学館

❖ 투고일 : 2009. 12. 31.

❖ 심사일 : 2010. 1. 11.

❖ 심사완료일 : 2010. 1. 20.